

함즐함울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롬 12:15

362

2016. 3.27

2016년 주님의교회 표어
그들로 우리와 함께 예배하게 하소서
(출 5:3)

오늘의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히 10:19,20)

오늘의 주요기사

- 2 통일선교특집
- 3 영화다시보기
- 4 사진으로 보는 예배드라마
- 5 목회칼럼
- 6 아가나들이

교회 일정

- 3/27 (주일) 부활주일
- 3/27 (주일) 부활절예배드라마
- 4/3 (주일) 성찬주일
- 4/11 (월) 정기당회
- 4/19 (화) 평양 남노회
- 4/20 (수) 1/4분기 제직회

발행인 : 박원호
편집인 : 배익환
발행처 : 주님의교회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길 16 정신여고 내) 02-416-5181~2
편집 : 함즐함울팀
홈페이지 : www.pcltv.org

주님의교회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3월 21일부터 26일까지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가 열렸다. 고난주간은 교회력에 있어 가장 의미가 깊은 주간이다. 올해 주님의교회에서는 예수님이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시며 겪으셨던 매일의 사건들을 해당 요일 본문으로 정하여 새벽기도회를 통해 주님의 마지막 일주일의 여정에 성도들이 함께 하도록 하였다. 또한, 주님께서 가지셨던 마지막 일주일 동안의 감정도 함께 느껴보고, '오늘의 비아돌로로사'를 통해 성도들이 매일매일 작은 예수가 되어 예배와 삶의 자리 가운데 십자가의 길에 동참하게 하였다. 청년부와 교육부에서 특순을 준비하였고,

찬양과 연주 등의 시간이 있었다. 첫째 날은 성전 정화를 하시는 예수님의 거룩한 분노를 되새긴다. 둘째 날은 가장 큰 계명은 사랑임을 가르치신 예수님을 묵상한다. 셋째 날은 향유옥합을 가지고 나와 깨트린 마리아를 공홀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느껴본다. 넷째 날은 겔세마네에서 기도하시며 느끼신 슬픔을 묵상한다. 다섯째 날은 수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고통과 함께 행복을 느끼신 예수님을 생각한다. 이날은 성금요일로, 예수님이 인간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날이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남기신 가상철언은 하

나님의 아들이며 동시에 인간의 몸을 지녔던 예수님의 삶을 함축하고 있다. 가톨릭에서는 일년동안 유일하게 미사가 없는 날이기도 하다. 여섯째 날은 죽으신 예수님을 묵상하는 날이다. 이 기간 동안 특별히 비아돌로로사 14처소 그림이 로비에서 본당에 올라오는 계단 벽면에 전시되어 기도회를 오고가며 묵상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중정(지하1층)에서는 레버린스 묵상기도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속죄의 마음으로 조용히 걸으며 하나님의 품에서 주시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시간을 갖도록 했다.

함즐함울

통일선교 특집

동무야 놀자

남과 북, 우리는 주님 안에서 같은 시대의 사명으로 함께 어우러지는 ‘동무’들입니다

청년의 때에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비전과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는 가운데 북한을 보여주셨습니다. 북한에 대해 처음부터 관심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저 한 번씩 스치는 이야기에 “안타까운 현실이구나, 과연 답이 있을까” 하는 막연한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개인적 차원을 넘어 하나님의 시선이 향하는 곳을 보여 주셨습니다. 제 기도의 지경을 넓히시고 북한 땅과 남한에 와있는 탈북지체들을 향하게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왜 북한이냐고 묻습니다. 그에 대한 답은 너무도 간단합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있는 이 땅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땅이 둘로 나뉘어져서 그 가운데 고 통당하는 영혼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7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분단이라는 어두운 그늘 아래 늘 전쟁의 두려움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실까요? 하나님은 절대 이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사랑으로 회복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제게 당신의 애통한 마음을 보여 주시고, 그 마음을 함께 느끼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육과 상담을 전공하는 제게 자연스럽게 “통일”이라는 주제를 접할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또 같은 마음을 품은 여러 청년 지체들을 만나고, 북한이탈청년들도 만나게 하셨습니다.

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랐지만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 서로를 점점 알아가고 이해하면서 마음으로 하나됨을 느꼈습니다. 탈북지체들과 아직 북에 있는 가족, 그리고 억압 아래 있는 수많은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뿐이었습니다. 나아가 탈북지체들과 함께 소통하여 하나로 지어져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통일을 향해 준비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 인도하심을 따라 지금은 하나원 사역을 감당하며 통일선교팀 모임에서는 “동무”라는 이름으로 그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르게 자라온 우리는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하나님 사랑 안에 하나되기 위해서 “동무야 놀자”라는 프

로그램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어느덧 4번째 “동무야 놀자”를 마쳤습니다. 우리는 조금씩 서로에게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향해 함께 기도로나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각자 연약한 부분이 있고 하나되는 것이 쉽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품고 이 곳에서 작은 통일을 이루어가도록 우리를 기도와 말씀으로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언젠가는 다가올 “통일”이라는 시대의 사명 앞에, 우리 청년들은 부르심에 합당한 자들로 쓰임받기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남과 북 동무들로 어깨를 나란히 하여 함께 하나가 될 그날을 소망하며 지금도 기도합니다.

윤보라 청년부

겨자씨

10교구(젊은이) 개강



작년까지 2030교구로 불렸던 젊은 부부교구가 올해 10교구(젊은이)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더욱 활기차고 풍성한 시작을 알렸다. 젊은이 10교구의 구성원은 20~30대 부부 및 36세 이상 싱글 청년이다. 3월 6일(주일) 겨자씨 개강모임에는 130여명이 모여 서로 교제한 후 겨자씨모임을 가

졌다. 겨자씨모임은 주일예배 후에 90분 동안 진행되며, 매주일 150여명이 참여하여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서로 삶을 나누며 위로와 힘을 얻는 기도공동체로 다져가고 있는 중이다. 자녀들을 위한 돌보미방도 운영을 하고 있어서 부부가 모임에 집중할 수 있다. 현재 싱글 겨자씨 2개,

부부겨자씨 10개, 자매겨자씨(기혼) 2개, 총14개의 겨자씨가 활동 중이며 각 겨자씨에는 멘토리더들이 모임을 섬겨주면서 이들의 영적 성장을 돕고 있다. 10교구(젊은이) 겨자씨모임이 더욱 활성화되면서 가정 안에 하나님나라를 든든히 세워나가기를 기대해본다.

함줄함줄

성경, 한자로 풀어보기 86

聖物(성물)의 材料(재료) 중 金(금)銀(은)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들인 금은 성소의 세겔로 스물아홉 달란트와 칠백삼십 세겔이며 계수된 회중이 드린 은은 성소의 세겔로 백 달란트와 천칠백칠십오 세겔이니 계수된 자가 이십 세 이상으로 육십만 삼천오백오십 명인즉 성소의 세겔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베가 곧 반 세겔 씩이라(출애굽기 38장 24~26)

金(금, gold)

황색의 빛나는 금속원소(Au). 팔레

스타인에는 금광이 없고 아라비아 지역, 하월라, 스바, 오빌 등이 원산지이다. 금은 성전건축이나 장식과 장신구에 활용되었다. 바사시대에는 금화가 통용되었다.

銀(은, silver)

청백색의 귀금속으로 주산지는 아라비아지역, 다시스 이며 성소의 성물, 잔, 장신구, 악기에 활용되었다.

聖經的(성경적) 意味(의미)

성경에서 금은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대변하는 물질 또는 변치 않는 것. 존귀함을 상징하는 보물이며 은은 연단과 성결의 상징이다. 그러나 성경은 금은보다 더 고귀하고 영원한 것이 있다고 선언한다. 그것은 ①여호와와 법 곧 하나님의 말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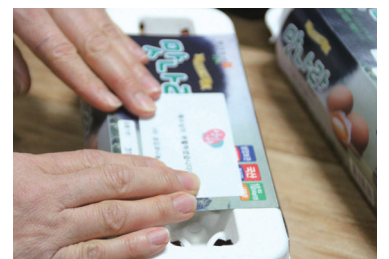
②주를 경외하는 지혜와 명철. ③연단된 믿음이다.

文字的(문자적) 意味(의미)

★金(쇠 금, 금 금): 集(모일 집)의 변형체 스(모일 집 머리)과 흙이나 땅을 의미하는 土(흙 토, 땅 토)와 존재, 동작, 상태를 나타내는 丶(점 주)를 결합시켜 【모여 댔인 흙속에 매우 반짝이는 것이 있으니 쇠 또는 금이다】라는 글자를 만들었다.

★銀(은 은, 월 은): 쇠붙이의 총칭인 金(쇠 금, 금 금)에 그치다. 멈추다. 머문다의 뜻을 지닌 艮(그칠 간)이 결합되어 【금속류 중에서 눈길을 머물도록 사로잡는 것이 은이다】라고 하여 희고 빛나는 은의 아름다움을 표현하였다. **함줄함줄**

섬기는 손 30



부활절과 고난 주일을 맞아 마천, 거여동 독거노인들을 위해 달걀과 선물을 포장하여 나누어 드리는 귀한 섬김의 손입니다. 주님의교회 부설 (사) 섬김과 나눔에서는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50여분께 영양죽과 생필품을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 '섬기는 손'은 사역 현장의 풍경을 담아 함께 하기를 권유하는 작은 공간입니다.

함줄함줄

부리도생각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새봄과 함께 부활절을 맞으며 이 땅에 평화가 이루어지는 소망을 갖습니다. 남과 북간의 평화, 세대 간의 평화, 계층간의 평화, 종교간의 평화... 평화는 모든 소망의 근본입니다. 어떤 소망이 이루어질 지라도 평화가 동반되지 않으면 그 소망이 바른 소망이 아닐 것입니다. 요즈음처럼 갈등이 심각할 때 일수록 평화에 대한 소망은 더욱 커집니다.

평화란 무엇입니까? 이는 갈등이나 혼돈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당장에 위협이나 두려움은 없을지 몰라도 항상 위협은 존재합니다. 참된 평화는 적극적인 평화로서 의미와 건강 그리고 웃음이 회복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잔칫집에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면 사람들은 하나 둘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음악도 그치게 되고 웃음도 그치게 됩니다. 곧 모든 것이 떠날 것입니다. 주인도 마무리할 준비를 합니다. 이는 평화가 아니라 공허입니다. 언제부터 우리는 나라의 통일을 말하면서 공허를 평화라고 여기는 것 같습니다. 공허는 때로 혼돈보다 더 고통을 가져다줍니다. 공허가

다가올 때 생명의 활동은 그쳐질 것이고 만물의 아름다움은 사라질 것이며 소망도 함께 물러갈 것입니다.

문제는 평화의 길입니다. 어떤 길이 평화의 길입니까? 이 땅의 역사는 항상 힘을 통한 평화를 추구했습니다. 로마의 평화나 미국의 평화는 모두가 힘을 사용한 평화입니다. 그 힘이 군사력이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고 사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힘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 평화는 반드시 다른 힘을 낳습니다. 그 다른 힘은 또 다른 힘을 불러들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 참 평화를 이루지 못하는 근본 이유입니다. 모두가 이를 원합니다. “평화를 이루는 길은 더 큰 힘을 갖는 길이다!” 물론 힘을 사용하는 길이 당장에 평화를 이룰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다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었고 평화의 민족이었습니다. 태극기에 나타는 음양의 조화는 평화를 나타내는 상징이며 또한 평화를 이루는 길입니다. 음과 양

은 자신의 고유함을 가지면서 동시에 서로를 보완함으로서 하나를 이룹니다. 여기에는 조금도 갈등도, 다툼도, 섞임도, 분리됨도 없습니다. 이들의 관계는 힘의 관계이거나 상하의 관계가 아니라 다름과 인정, 존경과 연합의 공존 관계입니다. 과학에서 말하는 뫼비우스 띠와도 같은 원리입니다.

기독교의 근본 사상도 함께 합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었으면서 참 인간이십니다. 신적인 본성과 인적인 본성이 함께 존재하십니다. 두 본성 사이에는 “혼돈도, 변화도, 분열도, 분리도 없으며 하나가 됨으로써 다름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각 본성은 자신의 고유함을 보존하십니다. 이러한 본성의 관계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이며 사람과 사람의 관계이며 나아가 자연과의 관계입니다.

죄는 이러한 관계를 파괴하는 근원적인 힘입니다. 죄는 끊임없이 힘과 거짓을 통하여 상대방의 다름과 고유함을 억압하여 자신처럼 만드는 역사입니다. 여기에는 오직 거짓된

하나됨만 있습니다. 그 하나됨은 상대방을 인정하는 하나가 아니라 오직 나만을 위한 획일적인 하나이기 때문에 평화를 막는 가장 큰 세력입니다. 예전에 우리의 할머니들은 시집와서 할아버지와 하나 됨을 요구받았습니다. 그 하나됨은 철저한 남편에게 복종하는 하나 됨이었습니다. 친정도 못 갔을 뿐 아니라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게 하는 복종이었습니다. 3년을 성공적으로 마친 할머니들은 어떻게 됐을 까요? 순종은 커녕 대 반격을 준비하게 됩니다. 3년 뒤부터 할아버지는 모든 무력을 포기하고 할머니 말 한마디에도 꿈쩍 못하는 신세가 됩니다.

우리가 택하는 평화의 길은 어떤 길인지요? 우리는 과연 참된 평화를 소망하는지요?

참 평화가 우리의 마음과 가정 속에, 그리고 사회 속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박원호 목사

〉 ‘부리도’는 주님의교회가 있는 지역의 옛 지명입니다. 한강 남쪽에 있던 작은 섬이었으며, 새들의 낙원이었다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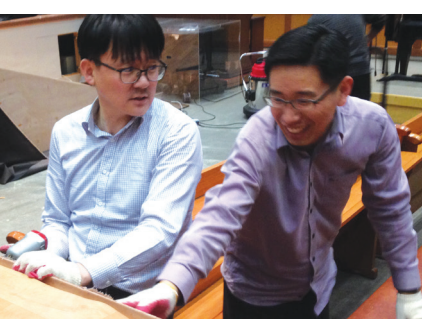


2016 부활절 예배드라마



3월 27일 부활절에는 예배드라마 ‘아버지의 집으로’가 그려진다. 5회째를 맞은 올해에는 험난했던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십자가와 부활의 믿음으로 참 용서와 화해가 이뤄지는 현장을 보게 된다. 인간적인 상처와 갈등, 분열된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와 화해로 새롭게 시작되는 것이다. 연기자를 비롯하여 무대, 소품, 의상을 맡은 성도들과 식사 준비와 뒷정리를 하는 손길까지 수개월의 정성과 땀방울로 준비되었다.

함줄함울



영화로 성경읽기

〈레버넌트, 죽음에서 돌아온 자〉, 주님의 고행 이야기

얼마 전, 영화 〈레버넌트〉가 다시 화제가 되었다. 이 영화의 주인공 휴 글래스 역으로 열연을 펼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2월 28일 열린 제88회 아카데미 상 시상식에서 남우주연상을 받았고, 이 작품을 감독한 알레한드로 곤잘레스 이냐리투 감독도 전년에 이어 감독상을 연속 수상했기 때문이다. 잘 알려진 것처럼, 이 영화는 19세기 초 미국 서부 개척 시대의 전설적인 모피 사냥꾼 휴 글래스의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회색곰의 습격으로 부상을 입고 죽음의 문턱에 이른 휴 글래스가, 그의 눈앞에서 아들 호크를 죽이고 떠난 존 피츠제럴드(톰 하디 분)에 대한 복수심 하나로 한 겨울 설원 4천 km를 가로질러 생존한 이야기이다. 이 영화를 감독한 이냐리투 감독은 “삶의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우리는 과연 누구인가, 인간은 무엇으로 만들어졌으며 또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서 이 영화를 만들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캐나다에서 촬영했다는 광활한 자연의 풍경은 이 영화를 기왕이면 화면이 큰 영화관에서 관람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된다. 그러나 그밖의 여러 면에서, 이 영화를 흥미의 관점에서 보면, 기대에 값을 못하는 부분이 많다. 휴 글래스가 온갖 고난을 겪으며 광막한 설원을 가로질러가는 서사는 단순하다. 영화 30도에 이르는 혹독한 추위와 눈보라, 인디언 부족과 사나운 맹수들이 변변한 무기도 없는 그를 사정없이 추격하고, 그는 의지와 우연의 교차로 위험을 벗어나는 서사를 반복하면서 별판을 건너간다.

예측 가능한 이야기는 지루한 법이다. 풍경에도 지친 눈이 감길 무렵, 눈에 들어오는 장면이 있었다. 휴 글래스가 무너진 교회를 발견하고, 그 안에서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성화를 바라보는 장면이었다. 돌아서서 나오는 휴 글래스의 앞에 피츠제럴드에게 죽임을 당한 아들 호크가 다가오고, 휴 글래스는 호크의 머리를 안아준다. 어슴푸레 저물어가는 시간, 화면 한 가운데에 폐허가 된 교회 건물과 십자가를 배경으로,



이 영화는 경쟁과 탐욕에 눈이 멀고, 이방인과 약자를 무덤으로 내몰고 있으면서도 주님 이름을 경망되게 부르면서 스스로 만족하는 이 시대의 ‘무너진 교회’에 대한 은유이다

화면 왼쪽에 클로즈업 된 휴 글래스의 얼굴이 아들을 내려다보고 있는 미장센에서, 죽은 아들을 애통해 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했던 것이다. 그러자, 이 영화가 실은 생존담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야기가 아닐까 하는데 문득 생각이 미쳤다.

기독교는 표면적으로 이 영화를 장식하는 한 요소이다. 이 영화에 나오는 백인들은 수시로 기도를 하고 주기도문을 외운다. 심지어 호크를 살해하고 떠난 존 피츠제럴드조차 주님 이야기를 입에 달고 산다. 그러나, 그들에게 주님은 오직 그들의 탐욕과 자족을 위한 장식물일 뿐이다. 그들은 원주민을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으며, 노골적으로 착취와 폭행의 대상으로 삼는다. 이방인과 혼인한 휴 글래스는 경멸의 대상이며, 그 아들 호크는 최악의 산물이다. 그들은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과 다르지 않다. 예수님이 이방인과 죄인과 병자와 창녀를 받아들이는 것조차 그들은 경멸하지 않았던가.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던가.

존 피츠제럴드가 호크를 죽이는 데 별다른 죄책감을 갖지 않았던 것은 호크도 하나님 아래 같은 형제라는 인식이 없기 때문이다. 주님을 입에 달고 살지만, 정작 피츠제럴드를 움직이는 것은 돈이다. 도덕도, 인간애도, 약속도 그에게는 의미가 없다. 피츠제럴드에게 생매장당한 휴 글래스

장면은 예수님의 부활과 같은 상징적인 장면이다. 그는 복수심 하나를 품고 광야를 건너가며 잔혹한 시험과 마주친다. 엄동설한의 계곡물에 숨고, 말의 뱃속에서 흑한을 견딘 후 알몸으로 아침을 맞는다. 이 장면들은 세례와 부활의 은유다.

그 광야의 한 복판에서 마주친 폐허가 된 교회는 바로, 교회가 무너진 이 사회를 보여주는 은유이었을 것이다. 교회는 무너지고, 주님 이름은 맘몬에 이끌리는 사람들의 입에서 영혼 없이 반복되는 상투어일 뿐이다. 이방인으로 살해당한 호크는 마치 예수와 같다. 지금 우리가, 또는 우리 앞에 보이는 기독교인들이, 이방인과 약자에 대한 사랑과 용서는 접어두고, 내편과 네편을 가르고, 재물에 대한 탐욕과 사회적 성공과 일신의 안락을 추구하면서도 입으로만 주님의 이름을 경망되게 부르고 있지 않은가? 교회의 폐허를 배경으로, 이방인의 아들인 호크의 환영을 안아주는 휴 글래스는, 유대인에게 죽임을 당한 예수님, 아들을 품어주는 하나님이자, 그 자신 이 땅에 내려와 곤고한 삶을 건너가는 예수님이었던 것이다. 휴 글래스는 아들 호크에게 이렇게 말한다. “폭풍이 오면, 나무 앞에서 있으면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보이지. 하지만 땅속에 뿌리를 단단히 내린 나무는 절대 무너지지 않아. 내 아들이야, 빨리 끝나길 바란다. 이것을 안단다. 이 아빠가 곁에 있잖

니. 아빠가 널 끝까지 지켜줄 거란다. 절대 포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생각이 미치자, 이 영화가 과연 헐리우드 식의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인지가 궁금했다. 휴 글래스가 존 피츠제럴드를 기어코 추적해서 아들의 복수에 성공한다면 이 영화는 서부극의 오랜 전통을 이은 헐리우드 식 복수극으로 서사적 완결을 이룰 것이다. 그러나 휴 글래스는 존 피츠제럴드와의 결투 마지막 장면에서, “복수는 신의 것”이라고 하면서 그를 강물에 띄워 보낸다. 자연 속에서 오래 살았던 원주민, 아리카라족은 자연의 섭리대로 피츠제럴드를 처리한다. 그리고, 무심히, 휴 글래스를 지나쳐간다.

이냐리투 감독이 이 영화를 어떤 의도로 만들었든, 그게 생존담이든 복수극이든, 이 지점에서 이 영화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였는지를 깨달았다. 곰에게 입은 상처로 발성도 하지 못할 정도였던 휴 글래스가 살아남는 과정에서 보여주었던 구체성의 결여도 처음에는 결함으로 보였지만 그것이 은유를 위한 생략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이 영화는, 경쟁과 탐욕에 눈이 멀고, 이방인과 약자를 무덤으로 내몰고 있으면서도 주님 이름을 경망되게 부르면서 스스로 만족하는 이 시대의 ‘무너진 교회’에 대한 은유이다. 맘몬에 아들을 잃은 비통함을 가슴에 안고 엄동설한에 벌판을 맨발로 걸어가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이야기였던 것이다.

비로소, 이 영화의 제목이 ‘복수자’를 뜻하는 ‘revenger’가 아닌 ‘revenant’인 이유에 다시 생각이 미쳤다.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영어사전인 메리엄웹스터 사전에는 ‘레버넌트(revenant)’의 의미가 “죽음이나 오랜 부재에서 돌아온 사람(one that returns after death or a long absence)”이라고 되어 있다. 부활절 맞은 오늘, 우리에게 그이는 과연 누구일까.

함줄함줄

> <영화로 성경읽기>는 영화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씀을 찾아보는 코너입니다. 이번 영화는 2015년 발표된 <레버넌트, 죽음에서 돌아온 자> 편입니다.

목회칼럼

꽃보다 열매

봄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꽃구경을 갑니다. 꽃 축제 기간이 되면 교통이 마비될 정도의 인파가 몰려들기도 합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꽃을 좋아하는 이유는 꽃과 같이 사람들의 이목을 끌 수 있는 화려한 삶을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소박하고 수수한 모습 보다는 꽃처럼 아름다운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의 주목과 사랑을 받으며 살고 싶은 것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본능일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나무에 비유한 말씀이 여러 곳에 나옵니다. 특히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무화과나무에 비유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다. 무화과는 이름 그대로 ‘꽃 없이 열매를 맺는 나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무화과는 꽃을 보기 위해 심는 나무가 아니라 열매를 맺기 위해 심는 나무라는 것입니다. 이 무화과나무에 담겨있는 뜻을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 속에서 화려한 꽃과 같은 백성이 되기보다는, 화려하지는 않지만 늘 열매 맺는 무화과와 같은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

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명자로 삼으신 이유는 꽃처럼 돋보이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목받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바램과는 다르게 열매보다는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는데 시간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열매는 맺지 않고 꽃을 피우는 데만 연연해합니다.

꽃은 예쁘고 향기롭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아름다운 꽃을 피우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꽃은 아름답지만 생명을 잉태시키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꽃은 재생산하지 못합니다. 꽃을 심어

서 꽃이 피어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꽃은 열매를 위한 과정이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눈에 보이는 화려한 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속에 생명의 씨앗을 품고 있는 열매에 있습니다. 꽃이 되어 아름다움을 자랑하기 보다는 눈에 띄지는 않아도 생명을 품고 열매를 맺는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히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요15:8).

정창화 목사

사역소식

베트남어 기초반 8기 개강



해외선교위원회에서 주관하는 베트남어 기초반 8기가 지난 3월 5일 개강하였다. 12주 동안 1층 3집회실에서 매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6시 30분까지 진행되고 있고, 강사는 청운대 교수인 이강우 집사의 재능기부로 이루어지고 있다. 2012년에 1기로 시작한 베트남어 강좌는 베트

남 비전트립 지원, 견습선교사 파견 대비, 다문화 가정 지원 등의 취지에서 개설되어 왔다. 금년도에는 주님의 교회 주 해외 선교지인 베트남으로부터 오신 응웬 시푸 전도사가 주님의 교회 지원으로 장신대 대학원 입학하게 되고, 우리교회에서 전도사로 시무를 하게 되자, 베트남 선교

에 대한 교우님들의 관심이 고조되면서 수강인원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송파 다문화가정지원센터를 섬기는 분들을 포함하여 베트남 선교, 베트남 언어 및 문화에 관심 있는 55명의 교우님들이 수강신청을 하여 오늘도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다.

이상선 안수집사

정신학원에 갇힌 한국 기독교의 역사 29

일제하 미북장로회선교부 교육사업 인퇴(引退)(7)

일제의 교육령을 거부한 정신여학교에 사회가 비난 시각을 갖도록 조장한 결과의 산물, ‘B사감과 러브레터’(2)



B사감과 러브레터의 무대, 정신여학교

작가 현진건(玄鎭健, 1900.8.9-1943.4.25)은 정신여학교에서 일어난 위의 신문기사의 사건을 모티브로 삼아 1925년 ‘조선문단’에 ‘B사감과 러

브레터’를 발표했다.

물론 이야기는 픽션이지만 작품에 나타나는 정신여학교의 당시 모습은 사실적이다. ‘C 여학교에서 교원 겸 기숙사사감 노릇’은 신문기사의 ‘정신여학교 기숙사감독 겸 교사’로 있는 최명복 여사’이다. 그녀는 작품 속에 ‘야소꾼’으로 나타나있다. ‘학교로도 유명하고 또 아름다운 여학생이 많은’은 당시 명문 정신여학교 상황이다. ‘음악회’나 ‘바자회’도 연례 행사였다. 면회가 안 되어 ‘동맹휴학을 한 것’은 역시 신문기사와

같다. 작품의 무대는 기숙사인데, 바로 1911년에 세브란스병원 설립 기금을 후원한 그가 역시 후원해서 완공된 세브란스관이다. ‘방바닥(침대를 쓰기 때문에 방이라 해도 마룻바닥이다)’에 그래도 무릎을 꿇고기도를 올린다.’도 기숙사의 시설과 생활에 대한 정확한 묘사이다.

문학평론가들은 이 작품을 단순히 ‘인간이 지니고 있는 이중적 인격을 희극적 아이러니로 그려냈다’로 평가한다. 그러나 그의 작품 세계는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게 된 시대상황

에 대한 고민까지 확장되어 있지 못하다. 일제하 일제교육령을 따르지 않고, 기독교 민족 교육을 선도해 온 정신여학교에 대한 시대적, 역사적 소명을 근원적으로 다루지 못하고, 거기서 파생된 인간성에 대한 고찰을 그려낸 정도에 그치고 있다. 어쨌든 정신여학교 상황이 사회에 관심이 되었던 것은 그만큼 정신여학교가 최고의 여성교육의 요람으로 당시 사회에 차지하는 큰 비중을 알 수 있다.

이희천 정신여교 교장

섬김과 나눔

송파교육복지센터 위탁운영



(사)섬김과나눔에서는 송파구 삼전동 169-8 행복주택 2층에 송파교육복지센터를 개설하고 3월 20일(주일) 오후 4시에 박원호 담임목사, 장로, 법인 및 센터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송파교육복지센터 개소예배를 드렸다. 앞으로 송파교육복지센터에서는 가정의 경제적 결핍으로 인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학생을 대상으로 개인성장 지원 서비스 제공과 교육복지 비 사업학교와 지역사회에 산재한 지역기관 과 교육복지협력 망을 구축 운영하는 업무를 하게 된다.

섬김과 나눔

늘푸른대학 '사랑의 털모자' 후원



늘푸른대학은 (사)섬김과나눔과 함께 작년 12월에 제4차 '생명사랑 이웃사랑' 캠페인을 실시하였고, 지난 2월 17일, 작년에 제작한 '사랑의 털모자' 1,440개를 세이브더칠드런에 후원하였다.

아기나들이



한채아 아기

2015년 11월 27일생

1.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고 사랑 받으면서 살게 해 주세요.
2. 건강하고 예쁘고 지혜롭게 자라게 해 주세요.
3. 기쁨으로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아빠 한상우 / 엄마 정미경, 2016년 3월 13일 3부 예배



이라엘 아기

2015년 11월 19일생

1.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에게 속하게 하소서.
2.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도록 하여 주옵소서.
3. 주의 자녀로 예배하며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빠 이은석 / 엄마 양지은, 2016년 3월 20일 4부 예배



정사랑 아기

2015년 12월 7일생

1. 믿음 안에서 지혜롭게 자라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아이 되도록
2.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3. 요셉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아빠 정창화 / 엄마 하주영, 2016년 3월 20일 4부 예배

신앙상담 ☎ 02-416-5183

교회와 신앙에 대해 고민이 있으시다구요?

자격을 갖춘 상담사가 귀 기울여 듣고, 함께 기도해 드립니다.

›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상담이 진행됩니다.

교회단신

2016년 상반기 입교 및 세례식

3월 20일 종려주일에 상반기 입교 및 세례식이 있었다, 29명이 입교하고 25명이 세례를 받았다.

장년부 입교자 : 권효은, 김용길, 김정명, 이유정, 이재웅, 이혜란, 주석중, 차봉은, 황정은 (9명)

고등부 입교자 : 공예진, 김동준, 김민서, 김지우, 김지원, 김찬미, 민지원, 박재모, 박종윤, 박창준, 배진석, 신혜현, 안성수, 오현준, 원주희, 유은민, 이다빈, 이사랑, 하희준, 홍지민 (20명)

장년부 세례자 : 김문상, 김의환, 김준성, 박유홍, 서대승, 원슬기, 이선녕, 장석미, 조규민, 채주아, 홍석배 (11명)

고등부 세례자 : 강은석, 박준영, 송인혁, 이서진, 조성은, 최원석A, 최원석B, 함혜진 (8명)

상례위원회 조가팀 봉사



상례팀에 주님의교회 주관 발인 예배 때 조가를 찬양할 조가대(弔歌隊)가 조직되었다. 35명의 조가대(弔歌隊)팀원들이 A팀과 B팀으로 나뉘어 봉사를 한다. 하늘나라에 가는 천국 환송예배에 많은 은혜를 나누는 귀한 사역이다.

본당 빔프로젝터 이동설치

1층 중앙 방송실 앞에 설치되어있던 빔 프로젝트가 2층으로 이전 설치 되었다. 그동안 소음과 발열로 인해 예배에 방해가 되곤 하였는데 2층으로 중앙난간 쪽으로 이전하여 보다 쾌적하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안전점검이 용이하게 되었다.

알립니다

1. 유아세례 신청 및 교육

대상 : 교회등록 6개월 이상 세례교인의 24개월 미만 아기

신청 : 3/27(주일)~4/17(주일) 안내데스크(1층)

교육 : 4/17, 24 (2주간) 오후 1:30 초등부실(3층)

세례예식 : 어린이주일(5/1) 3부 예배시

문의 : 나관주 안수집사(010.4322.9917)

2. 예수친구사역 2단계 세미나 1차(6팀, 8팀)

일시 : 4/1(금)~2(토) 오후 5:00 교회출발

장소 : 가락재영성원(가평)

문의 : 박주영 전도사(010.3347.0390)

3. 희망의 기도 : 청소년 학부모, 교사 기도회

일시 : 4/2(토) 오전 10:00~12:00 소예배실(1층)

대상 : 청소년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성도

문의 : 이준엽 전도사(010.7736.0662)

* 매월 첫 주 토요일에 있습니다.